

# 읽고 싶은 새 책 '지혜의 반찬' 전달

### 전주시, 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 개인별 희망도서 2권씩 전달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추진 중인 전주시가 책으로 마음의 양식을 채워 줄 수 있는 '지혜의 반찬' 사업을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시는 20일 여름방학을 맞아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개인별 희망도서 2권씩을 전달했다.

남들이 보던 책이 아닌 새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청소년들이 독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름·겨울방학마다 맞춤형 도서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도서 지원에는 휴비스, 전주시치과(의사회), ㈜내소남모터스, 엔아이씨(주) 등의 정기 후원과 개인, 단체,



전주시는 20일 여름방학을 맞아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개인별 희망도서 2권씩을 전달했다.

사기업 등이 후원한 성금으로 추진된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2억 4522만 원이 후원됐다.

이번에 지원한 도서는 시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참고서와

문제집, 만화, 잡지, 만들기 책 등을 제외한 희망도서를 조사 받은 뒤 협약을 맺은 전주서점조합에서 구매했다.

시는 '지혜의 반찬'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도서지원 만족도 조사를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도서 지원을 위한 후원자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매일 아침 3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7년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다. 매일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기부하는 개인 후원자 15명을 비롯해 정기 후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등 누적 후원 금액은 9억9832만 원에 달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혜의 반찬 사업은 '친구들이 읽다 만 책 말고, 서점에서 안 팔려서 주는 책 말고 읽고 싶은 책이 필요하다'는 아이들의 편지를 통해 시작됐다"면서 "단순한 도서 기증사업이 아닌 소외계층 아동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드라이브 스루로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 전주농기센터, 오늘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서 진행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20일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제23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었다.

센터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복숭아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복숭아 농가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감안해 방문객의 차량 미하차를 원칙으로 직거래 행사를 개최했다. 직거래 행사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연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이날 센터는 장택백봉, 마도카, 대옥계 등 전주농협농산물유통센터에서 엄선한 우수 품질의 복숭아를 시중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을 보였으며,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복숭아 슬러시도 무상으로 제공했다. 직거래 행사는 2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도 전주복숭아의 명성을 지키려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드라이브 스루 직거래 행사가 이상기후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힘든 시기를 겪는 복숭아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불러오고 위축된 소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여름 휴가철 대비 숙박시설 안전점검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시는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역 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 공무원과 건축·전기·가스 분야별 민간전문가, 소방관 등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야별 안전수칙과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확인하게 된다.

분야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 내·외부 마

감 상태, 축대·옹벽 등 상태 ▲(전기) 분전반 주위 인화물질 적재 여부, 접지상태, 규격전선 사용 여부 ▲(가스) 가스용기 보관 적정성, 가스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소방) 소화기기 작동 여부, 비상구 관리 상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방역) 출입자 명단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현지 시정, 시정 요구, 개선 권고 등의 지도를 통해 안전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윤상기자

## 다양한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멘토링·심리검사 등 진행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진로 설정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 찾아 GoGo ▲꿈멘토와 꿈꾸다 ▲초등학교 진로칭의교실 '꿈Dream' ▲무료 심리검사 축제 등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각각 24일과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멘토 찾아 GoGo'와 '꿈멘토와 꿈꾸다'는 청소년들이 직업 멘토와 함께 바리스타, 앱 개발자, 응급구조사 등에 대한 체험을 하고 정보를 얻음으로써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13일에는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진로칭의교실 '꿈Dream'이 운영된다. 초·중·고등학생들은 스마트화분,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진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10~13일에는 초·중·고등학교 5학년 이상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여름방학 무료 심리검사 축제'가 열린다. 청소년들은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과 적성을 분석함으로써 적합한 진로방향에 대해 탐색하게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된다.

진로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jisangdam.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상담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전주YWCA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 '미래전략포럼 시즌2' 재개

### 전주시 공무원·출연기관·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총 38명 미래먹거리 산업·청년·저출생·고령화·균형발전 등 정책 발굴

전주시 공무원들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이 저출생, 고령화, 친환경 시대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안목 키우기에 나섰다.

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되지 못했던 '전주시 미래전략포럼 시즌2' 활동을 본격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 미래전략포럼은 카이스트(KAIST)의 각 분야별 전문 교수와 함께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은 성과를 구성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지난해 1월 활동을 시작했다.

올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카이스트 교수 초청 강연은 운영되지 못했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ESG와 미래 핵심사업인 수소 경제산업, 미래 모빌리티의 완성관이라 불리는 드론산업 등을 주제로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하반기에 시는 상반기에 중단됐던 초청강연을 다시 시작하고 선진지 견학에도 나서는 한편 시 공무원 25명 외에 출연기관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까지 참여를 늘려 총 38명으로 포럼 규모를 확대 운영기로 했다.

미래전략포럼단은 각 분야별로 ▲미래먹거리 산업 ▲청년 ▲저출생 ▲고령화 ▲균형발전 ▲ESG ▲혁신도시 이전기관 상생 방안 등을 연구 주제로 삼아 정책을 발굴한 뒤 시정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첫 포럼을 통해 '제2의 현실, 메타버스를 주제로 하반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미래전략포럼단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인재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초청 강연과 선진지 견학을 내실 있게 진행해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